

사람에게 '고정타입'은 없다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과 분별심

나 는 오래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다.

교양이 있다고 생각되는 많은 인사들과 점점 친해짐에 따라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른 아니라 그 분들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을 어떤 '타입'으로 분류해 보려는 것이다. 나도 이전에는 보다 바람직한 인간타입의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분류되기를 좋아하였던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은 오래 전 이야기이다.

오늘날 나는 인간에게 어떤 '타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 나는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좋아 한다. 또한 인간을 어린시절 젊은시절 어른시절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 나는 이와 같은 분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인간을 분류한다는 것은 이런 정도면 충분하며 이 이상 인간을 재밌게 분류해 본다는 것은 그 철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학자타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다.

학자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시원치 않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 뿐 아니라 나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비교적 정통하다 다른 분야에 대하여서는 너무나도 무식하다는

김중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그림 · 이준석

물과 파도처럼

환경따라 변하니

사람모습 나누지 말라

현대사회 제반문제

분별심서 비롯

은 제한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는 '쾌활한 타입'이 되기도 싫다. '쾌활한 타입'의 인간이 되려면 나의 타고난 성품 이상으로 일부러 웃어야만 하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 는 '친절한 타입'이 되기조차 원하지 않는다. '친절한 타입'의 인간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성품이나 감정을 누르고 감각 없는 인간이 되어서 남을 해치지 않는 잔꾀를 부려야만 한다는 것이 강요되는 수가 있다.

나를 '교육학 교수'라고 부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어떤 타입'하면 벌써 냄새가 난다. 교육학 교수인들 그들 사이에 각종 다양한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다.

나를 '믿음직한 타입'이라고 부르지 말기를 바란다. '믿음직한 타입'이란 오랜 시일에 걸쳐 지나친 분별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을 뜻한다. 나를 '도량이 넓은 타입'이라고 부르지 말라. 너무나 넓은 그릇에 물을 넣으면 말라 버리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정확히 분류되는 데서부터 빠져 나올 것이라는 것만이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이 생각할 때 사람을 고정관념에

분별심에 의한 '인간분류' 교육 그르친다 본성 누구나 같아 "동체사상 배우자"

따라 분류하는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은 교육상 얼마나 좋지 못한 일인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을 문제학생으로 분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것은 한 인간 전체를 문제인간으로 낙인을 찍는 것을 의미한다.

싸움을 잘 하는 학생이라고 하여도 싸움 잘 하는 자라는 문제일지 모르나 그 행동을 제외한 다른 행동에 있어서는 타인의 모범이 될 수 있다. 싸움 자체는 문제이지만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다든지, 약자의 편에 선다든지, 용기가 있다든지, 모험심이 강하다든지, 지도력이 있다든지 등은 타인의 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운운한 학생이라 하여도 의존적이고, 소극적이며, 성취동기가 약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인간을 고정관념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그 인간에

대한 교육을 잘못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다.

고등학교 때 지능은 높았으나 공부는 하지 않고 정치에 관심이 많아 정치 집회에는 빠짐없이 참여하고, 의협심이 강하여 교원자질이 부족한 교사 배척 운동에 앞장서고, 패싸움의 선봉자이며, 많은 이성을 사귀는 등 종래의 교육의 고정관념에 따르면 문자 그대로 문제학생이었다. 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후 걸어온 길은 당시의 교원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현재 이름이 널리 알려진 원숙한 지도자로 이 나라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수 없이 많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청소년 시절 문제학생이 문제학생이 아니고 문제학생 아닌 학생이 문제학생인지도 모른다.

부 처남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 것을 가르쳐 주셨다. <화엄경(80권 화엄경)> 권43에 "세간에 집착하지 않으며 제법을 취하지 않으며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며 세상 일에 염착(染着)하지 않으며 경계를 분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사회의 제반 문제는 고정관념에 의한 분별심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부지는 사는 집과 드나드는 식당과, 입는 옷과, 장식물은 가난한 사람과 달라야 한다고 분별하며, 학식이 많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을 멸시하고 그들과 섞이는 것을 싫어하며, 권력이 많은 사람은 힘없는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며, 개신교 신자는 불교 신자를 싫어하고, 스님은 속인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의 사회문제가 있다.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이고, 서양사람과 동양사람이 하나이고, 기업주와 노동자가 하나이고, 스님과 속인이 하나이고, 부처와 중생이 하나인 동체사상(同體思想)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모두 불어문(不二門)을 지나서 하나의 본성으로 될 때 이

사회에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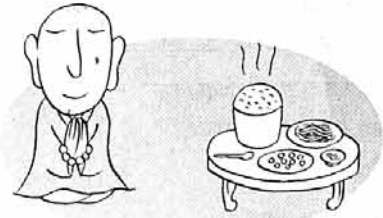
대승기신론에는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의 이중문(二種門)은 서로 여의지 않는다(不相離故)"라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물의 본성은 젓게 하는 습성인데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멎으면 파도도 또한 없어진다"라고 말할 구절도 있다.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같은데 주위 환경 여하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별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사람을 고정관념에 따라 분류하고 이 분류에 따라 분별심을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불자의 참 모습이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생활불교용어



규모가 크고 엄숙한 광경을 볼 때 "장엄하다"고 탄복한다. 또 의식이 웅장할 때 "장엄하다"고 한다.

그러나 장엄(莊嚴)이란 불교의 극락세계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임을 아는 이는 드물다. 장엄이란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국토를 꾸미는 것'을 말한다. 불교에서의 장엄은 단연 극락세계 아미타불의 국토이다. 이곳에는 17가지의 장엄이 있다고 한다.

극락정토에는 청정(淸淨)한 공덕(功德)으로 장엄되어 있다. 또 무량(無量)한 공덕으로 장엄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존재의 본질인 성(性)공덕으로 장엄되어 있다. 극락의 모든 일들은 공덕스러운 것들 뿐 악한 것은 없다. 극락은 묘한 색깔(妙色)로 장엄되어 있다. 극락의 모든 축감은 좋은 것 뿐이다.

장엄하다

아름다운 것으로 꾸민 극락세계
규모가 크고 엄숙하고 웅장한 모습

극락의 물은 맑고 순탄하며 허공은 아름답다. 극락은 아름답고 꽃다운 비(雨)로 장엄되어 있다. 또한 환한 광명(光明)으로 장엄되어 있다. 극락의 소리는 아름답고 오묘하다. 극락의 주인은 아미타불이므로 주인의 공덕이 가득하다. 극락에 사는 가족들은 이미 왕생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덕으로 장엄하고 있다. 극락은 나를 위한 땅이면서 남을 위한 땅이다. 그래서 극락은 자리(自利)와 이타(利他)가 가능하다. 극락에는 일체의 고난이 없다. 극락에는 혐오나 질투 같은 것이 없다. 극락에는 원하는 것이 모두 이뤄진다.

이렇게 보면 극락세계의 장엄이 얼마나 '장엄'스러운지 알 수 있다. 장엄한 극락국토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극락국토의 장엄도 구인 청정한 수행을 해야 한다. 예불하고 염불하며, 극락의 찬란한 광경을 관찰하고 그 땅에 얻은 기쁨과 결과를 타인을 위해 회향하는 것이 있어야 극락은 장엄된다. 장엄은 물질적이고 시각적인 아름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계의 완성을 말한다. 그러므로 장엄은 우리가 쌓아가는 선행 그 자체가 될 것이다.

■ 참고: 안길모꼇 '이판사판 아담법석'

감·로·심·장·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 · 안면기형 · 안과 (백내장, 녹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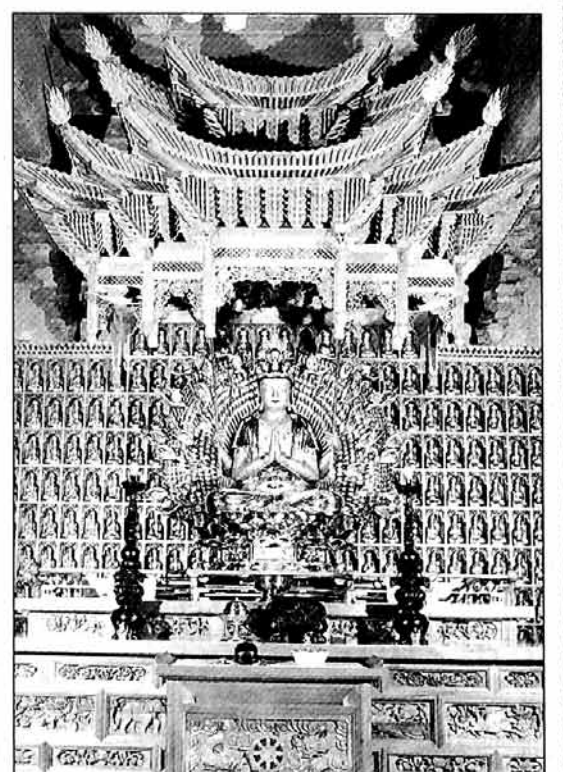
후원문의: ☎ (0591)747-0106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단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동,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 ▷ 서울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TEL. (02)738-8447
- ▷ 대전사무실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동 807번지 TEL. (042)483-8466
- ▷ 공방연구실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25-1 TEL. (0416)857-5825

대표 이진형 합장